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2: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두 번째 적극적 표지, 인쇄 346~364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운다. 참된 감정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 자체의 아름다움이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그다음이다. 이어서 “모든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반론을 논리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자기 사랑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가짜 사랑의 여러 모양을 성경 속 인물과 함께 보여 준다. 본성적 감사, 잘못 그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사랑, 공동체 차원의 자기 사랑이 그것이다. 그 뒤 성도의 감사가 본성적 감사와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요한일서 4:19를 근거로 한 반론에 답한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그 밖의 감정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위선자는 자기와 자기 체험을 즐거워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차이는 순서에서 드러난다. 자기 부족을 보게 될 때 감정이 무너지느냐, 오히려 깊어지느냐로도 드러난다.

🪪 표지 카드

표지 2(적극): 은혜로운 감정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 자체의 뛰어난 아름다움이지, 그것이 내게 주는 이익이 아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생기는 사랑과 감사는 누구에게나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리에게도, 짐승에게도, 마귀에게도 있는 '자연적 원리'다. 그래서 그런 감정은 아무리 뜨거워도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워서 마음이 끌리는 사랑은 새로운 영적 감각이 열린 사람에게만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증거가 된다.

📜 절별 정리

📜 1. 명제: 감정의 첫 근거는 하나님의 일 자체의 탁월함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의 영적 감정을 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객관적 기초가 하나님의 일 자체가 지닌 탁월함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객관적 기초'란 마음이 바라보고 반응하는 대상 쪽의 이유를 뜻한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나와 관계있다'는 사실이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다. 근거로 앞에서 세운 원리를 다시 꺼낸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모든 은혜로운 감정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사역과 길을 그 탁월함과 영광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받았거나 받을 혜택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첫 기초는 결국 '자아 사랑'이 된다.

1. 사랑이 모든 감정의 뿌리다
2. 첫 근거는 하나님의 일 자체의 아름다움
3. '나와의 관계'는 이차적 영향일 뿐
4. 혜택이 첫 이유면 기초는 자아 사랑

> —
> 명제를 세우는 단락이라 구절 인용이 없다. 성경 근거는 뒤 절들에서 제시된다

📜 2. 반론: "모든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랑이 자아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것도 결국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 곧 사랑의 열매다. 그는 비유를 든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다고 우기는 꼴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짜 원인은 자아 사랑과 전혀 다른 데 있다. 영적 감각이 바뀌어 하나님 본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이 원인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끌리고, 그 뒤에 열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행복을 구하게 된다.

1. '하나님이 내 행복'은 사랑의 결과다
2. 결과를 원인이라 부르는 건 순서 혼동
3. 아버지·아들 비유로 반박
4. 진짜 원인은 새로워진 영적 감각
5. 끌림이 먼저, 내 행복 추구는 나중

> —
>
> 이 절은 성경 인용 없이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따지는 논리로 반박한다

📜 3. 자기 사랑에서 나온 사랑은 영적일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원하는 관계, 받은 존경, 받은 혜택이 사랑의 이유가 될 때다. 뇌물 준 사람을 좋아하는 판사, '내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런 예다. 이런 사랑은 상대의 사랑스러운 자질 때문에 생기는 사랑과 본질이 다르다. 그런데 자아 사랑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원리다. 천사에게 있는 만큼 마귀에게도 있다. 그러니 그 열매는 결코 초자연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도 이런 사랑을 죄인의 사랑과 같다고 하셨다. 마귀조차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욥을 고발했다. 하나님도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고발이 사실이라면 그 경외가 무가치하다는 전제를 인정하셨다. 결론은 이렇다.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의 탁월함이듯, 하나님을 사랑할 주된 근거도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이어야 한다. 그 탁월함이 모든 선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1. 뇌물 받은 판사의 '사랑'과 같은 구조

4. 하나님의 탁월함이 사랑의 마땅한 근거

5. 혜택만 보면 모든 선의 근원을 놓친다

> **누가복음 6:32**
>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한다는 예수님의 판정
>
>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 **욥기 1:9**
> “까닭 없이 경외하겠느냐”는 사탄의 말. 이익 때문에 하는 경외는 무가치하다는 전제
>
>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욥기 1:10**
> 복의 '울타리' 때문에 섬긴다는 고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그 전제를 인정하심
>
>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 4. 본성적 감사: 감사가 곧 은혜는 아니다

감사는 분노처럼 영혼에 본래 있는 감정이다. 분노가 내 이익을 막는 사람에게 일어나듯, 감사는 내 이익에 맞는 것을 준 사람에게 일어난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화낼 수 있듯이(부모가 자녀에게 그렇듯),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개도 친절한 주인을 따른다. 사울은 목숨을 살려 준 다윗에게 감동해 마음이 풀렸지만 적개심은 그대로였다. 하나님께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 홍해에서 노래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일을 잊었다. 나아만은 병이 낫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세상 이익이 걸린 데서는 예외를 두었다. 느부갓네살도 회복된 뒤 크게 감동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악이다. 하지만 감사 없음이 악하다고 해서 모든 감사가 구원하는 은혜라는 뜻은 아니다.

2. 사랑 없이도 감사할 수 있다
3. 사울: 감동했지만 적개심은 그대로
4. 홍해 노래, 나아만, 느부갓네살의 감동
5. 배은망덕은 악, 그러나 감사 ≠ 은혜

> **누가복음 6:32**
>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 본성적 감사는 악인에게도 있다
>
>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 **마태복음 5:46**
>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
>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로마서 1:31**
> 본성적 정이 없는 것은 악의 증거. 그래도 정이 있다고 은혜인 것은 아님 (번역서 표기 '롬 2:31'은 1:31의 오기로 보임)
>
>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 **사무엘상 24:16-19**
>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 다윗에게 감동해 울었지만 바뀌지 않은 사울
>
>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5:15-18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 치유에 감동했으나 이익 앞에서 예외를 둔 나아만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니엘 4:34-37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 회복 뒤 하나님을 높인 느부갓네살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 5. 내가 지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

잘못된 하나님 개념에서도 일종의 '사랑'이 생긴다. 교육으로든 어떤 경로로든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다. 하나님은 자비하기만 할 뿐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선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베푸신다는 생각도 있다. 사람이 선하니 하나님도 선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상상 속의 신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샀는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에게 잘 맞는 신을 상정해 놓고 좋아하게 된다.

1. '자비만 있고 공의는 없는' 하나님
2.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
3. 죄와 진노를 모르면 신을 내 입맛대로 만든다
4.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 —
> 이 절은 구절을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앞 절의 나아만·느부갓네살·홍해 사례를 다시 예로 든다

📜 6. 순서가 뒤집힌 사랑과 성도의 순서

가장 뜨거운 가짜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사랑의 첫 이유일 때 생긴다. 이런 사람은 죄를 깨닫고 지옥이 두려워 괴로워한다. 그러다 성경 구절과 함께 또는 구절 없이 떠오른 인상이나 '직접 생각나게 하는' 현상을 겪는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갑자기 확신한다. 그 뒤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리스도를 쉽게 찬양한다. 하지만 따져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만든다. 충동, 속삭임, 상상에 떠오르는 표상을 하나님과의 교통이라 여기니 감정이 계속 새로워진다. 성도는 반대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보고 마음이 사로잡힌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안다. 성도의 감정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거기서 자아 사랑은 '시녀'다. 위선자는 자기를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그 위의 '상부구조'로 얹는다.

1. 가짜: “날 사랑하시니 그분이 좋다”
2. 갑작스러운 인상·확신이 출발점이 됨
3. 교만과 탐욕이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함
4. 참: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은혜는 나중에 앎
5. 성도에게 자아 사랑은 시녀일 뿐

> —
> 이 절은 성경 인용 없이 감정이 생기는 순서를 대조한다. 다만 '성경 본문과 함께 오는 인상'을 증거로 삼는 태도를 경계한다

“성도의 감정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 7. 공동체 차원의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은 개인을 넘어 '우리'에게도 작동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 나라를 한 몸처럼 여기면, 지금 진행 중인 전쟁에서 나라가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한다. 이 원리는 인류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 다른 행성 사람들이나 타락한 천사들보다 '우리 인간'이 받는 이익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아 사랑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것, 하늘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말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 집단의 일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도 본성적 감사와 같은 원리다.

3. 구속 이야기에 울어도 그 원리는 본성적일 수 있다

> —
> 이 절은 구절 인용 없이 나라·인류의 예로 원리를 넓힌다

📜 8. 은혜로운 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고 모든 감사가 본성적이고 영적 감사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감사와 엄청나게 다른 은혜로운 감사가 분명히 있다. 차이는 둘이다. (1)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깔린 위에서 흘러나온다. 친한 친구의 친절에 더 깊이 감동하는 것은 이미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느낀 감사와는 다르다. 성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사랑이 작동한다. (2)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는 은혜 자체에 감동한다. 그 선하심이 하나님 본성의 아름다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구속에서 드러난 은혜는 우리에게 미치든 안 미치든 영광스럽고, 천사들 눈에도 그렇다. 성도에게 베푸신 자비는 하나님이 성도 앞에 놓으신 '거울'이다. 성도는 그 거울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바라본다. 여기서 자아 사랑은 주의를 붙잡고 감사를 키워 주는 시녀 역할을 한다.

1. 영적 감사는 분명히 있다
2. 차이 1: 하나님 사랑이 먼저 깔려 있음
3. 친한 친구에게 하는 감사 vs 사울의 감사
4. 차이 2: 선하심 자체를 아름답게 봄
5. 내가 받은 자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 **시편 116:1**
>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 성도도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한다. 다만 그 아래 다른 사랑이 있다
>
>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본문 표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이 가리키는 구절)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 영광의 드러남이다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9. 반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어떤 이는 요한일서 4:19를 들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 사랑의 주된 기초라고 반박할 것이다. 에드워즈는 9~11절과 비교하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의 취지가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의 근거라는 뜻이 되는 방식은 셋이다. (1) 성도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부터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생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2) 구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천사와 사람에게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러니 사랑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이것은 이 장의 주장과 잘 맞는다. (3) 회심 때 드러나는 택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 주는 일이다. 동시에 거룩한 감사가 일어날 합당한 계기가 된다. 결론은 같다. 영적 사랑은 하나님의 일 자체의 탁월함에서 나온다.

1. 요한일서 4:19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강조
2. 9~11절 문맥과 함께 읽어야 한다
3. (1) 우리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4. (2) 구속은 하나님 완전성의 전시
5. (3) 회심은 영광의 계시이자 감사의 계기

> **요한일서 4:19**
> 반론자가 드는 구절.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으로 해석한다
>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10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심 — 19절의 문맥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11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 문맥상 짝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10. 기쁨도 같다: 나를 즐거워하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성도의 기쁨도 하나님의 일 자체의 탁월함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볼 때 달콤한 즐거움이 생긴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며 우쭐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도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성도는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즐거워한다. 복음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며, 거룩함을 귀하게 하고 죄를 부끄럽게 하며, 값없는 주권적 사랑을 드러낸다. 성도에게는 자기 유익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먼저 달콤하다. 위선자도 복음이 생생하게 전해질 때 크게 기뻐한다. 하지만 그 기쁨의 기초는 '그게 다 내 것이고 나를 남들과 구별해 준다'는 데 있다.

1. 위선자는 자기를,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함
2. 성도: 하나님이 좋다 → 그분이 내 것이라 좋다

5. 성도의 상부구조가 위선자에겐 기초

> —
>
> 이 절은 구절 인용 없이 앞의 사랑 논증을 기쁨에 적용한다. 각주의 구절들은 본문이 아니므로 제외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 11. 체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

위선자의 기쁨은 자기에 대한 기쁨이라서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된다. 이른바 영적 체험을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체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얼마나 좋은 체험인가, 얼마나 위대한 현현인가!” 체험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다. 체험을 자기 상태를 살피는 표지로 쓰는 게 아니라 체험을 먹고 산다. 감정이 고조되는 과정은 이렇다. 상상에 떠오른 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높여 주심에 대한 직통 계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감정이 오른다. 그 감정을 '놀라운 체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긴다. 그 생각에 다시 감동한다. 그 위에 자만과 격한 열정이 쌓인다. 상상, 자아 사랑, 교만 위에 지은 '공중누각'이다. 말에도 차이가 드러난다.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위선자는 자기 체험, 계시적 현상, 강한 확신, 천국행을 말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복음의 영광을 말한다. 성도는 바라보는 대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눈을 돌려 자기 체험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실패로 여긴다.

1. 체험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함
2. 체험을 먹고 사는 신앙
3. 인상 → '계시' → 고조 → 감정에 또 감동
4. 상상·자아 사랑·교만 위의 공중누각
5. 위선자는 체험을, 성도는 하나님을 말함

(본문의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한다”가 가리키는 말씀. 번역본에 장절 표기는 없음) 무엇을 말하는지가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다

>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위선자들은 현현하신 그리스도보다도 자신들의 영적인 현현 체험에서 더 큰 위로를 얻는다.”

📜 12. 다른 감정들, 그리고 '내 부족'을 볼 때

슬픔, 겸비, 복종, 갈망, 열심도 위선자에게서는 자아 사랑에서 나온다.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총애하고 높여 주는 신이라면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기 쉽다. 그래서 많은 위선자의 고조된 감정은 '나는 탁월한 성도'라는 가정 위에 서 있다. 자기가 생각보다 못한 성도라고 느끼면 감정이 급격히 식는다. 최선의 체험 속에서도 자기 죄악성과 부족을 보면 감정이 '파산'한다. 기초가 자기였기 때문이다. 참된 감정의 기초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 결함과 체험의 천박함을 알게 되어도 감정은 정화될 뿐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감정을 더 향기롭고 고결하게 만든다.

1. 겸비와 열심도 자기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
2. '탁월한 나'가 무너지면 감정도 파산
3. 성도의 기초는 하나님이라 무너지지 않음
4. 내 부족을 보면 성도의 감정은 더 향기로워짐

> —
>
> 이 절은 구절 인용 없이 감정의 기초를 시험하는 기준(자기 부족을 볼 때의 반응)을 제시한다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끌리거나 밀어내며 강하게 반응하는 것. 에드워즈는 그 뿌리를 사랑으로 본다.

자아 사랑(self
love) — 자기 행복과 이익을 원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천사에게도 마귀에게도 있는 '자연적 원리'다.

본성적 감사
받은 혜택에 고마워하는 타고난 감정. 거듭나지 않아도,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도 생긴다.

은혜로운 감사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보며 드리는 감사.

탁월성(excellency)
대상이 그 자체로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 에드워즈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땅한 근거다.

객관적 근거
감정이 반응하는 '대상 쪽의 이유'. 내 기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끌렸는가를 말한다.

영적 감각(새 감각)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지각. 이것이 열려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맛'으로 느껴진다.

상부구조
기초 위에 얹힌 건물.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초이고, 위선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위에 얹은 장식이다.

위선자
이 책에서는 일부러 속이는 사람만이 아니다. 참 은혜 없이 신앙 감정을 가진 고백자

체험으로 먹고 사는 삶
그리스도 대신 자기 영적 체험을 묵상하고 자랑하며 거기서 위로를 얻는 신앙.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감정은 하나님의 일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하고, '나에게 좋다'는 그다음이다.
- 받은 은혜 때문에 생기는 감사와 감동은 세리·사울·나아만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아니다.
- 성도에게 자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을 섬기는 시녀가 된다.
- 위선자는 자기 체험을 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는 하나님을 말하고 즐거워한다.
- 내 부족을 볼 때 감정이 무너지는지, 더 깊어지는지가 내 신앙의 기초를 드러낸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3편 ·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가 · 표지 2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